

제 116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7세기 동아시아의 격동과 일본 국의 성립

(이 재석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는 고대 동아시아의 정세와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탈아입구와 아시아 연대론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질서와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자립과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7세기 동아시아에도 비슷한 격변의 시기가 있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차례로 건립되었고, 한반도에는 정변의 목적은 각기 달랐으나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의 정변, 백제에는 의자왕의 정변, 신라에는 비담의 난 등의 쿠데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으며, 왜국 역시 을사의 변을 겪었다. 왜국의 대외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6세기의 친 백제정책이 6세기 말과 7세기 초에 걸쳐 친 백제뿐 아니라 친 신라, 친 고구려, 친 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세기 초반 신라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왜국에 접근했다. 이후 왜국에서는 대외정책에 있어 친 신라 파와 친 백제 파가 대립하기 시작했고 당시 소가 씨와 효덕정권은 이를 놓고 대립했다. 이는 단지 개인 권력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노선의 선택과 유지에 따른 득실 관계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대외관계가 관심사가 과거 선진문물 유입여부에서 국가 존망의 문제로 직결되는 과제로서 급 부상되었음을 의미한다. 660년 백제멸망 이후, 왜가 백제부흥을 돕기 위해 군사를 보냈던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하자 왜는 군사적 비상 전 시체제로 돌입하고 이는 국가체제의 정비로 이어진다. 그리고 왜 에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일본최초의 체계화된 고대국가로서의 일본 국 성립이 이루어진다.

Q&A

1. 당시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볼 때 마치 왜는 정치적 독립체가 아니라 백제의 부속 국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도 그러했을까?
 - 당시 왜의 야마토 정권의 결집력이 약하긴 했으나, 백제의 지방정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백제 멸망 후 귀족층이 왜국으로 건너 가 일본 국 설립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2. '백촌강 전투'를 현행 국사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역사적 사료는 존재하나 한국에서 거의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교과서에 자세히 실리지 못하고 있다.
3. "왜"의 어원은 무엇인가?
 - 왜 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음과 훈 에서 대략 4가지 정도의 설을 추측하고 있다. 최초 중국인이 왜를 발음 상 표기해서 그렇다는 설이 있고, 왜가 중국의 입장에서 먼 동방, 공손하고 유순하다, 왜소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는 설이 존재한다.